

# 曙海小說研究

金 永 和

## 차 례

- I 序
- II 特異한 體驗
- III 作品世界
- IV 技術의 諸相
  - ① 性格創造
  - ② 풀 릇
  - ③ 背景과 雰圍氣
  - ④ 視點과 文体
- V 結 語

## I 序

曙海·崔鶴松(1901~1932)은 1924年 10月에 「故國」이 <朝鮮文壇>에 추천되면서 作品 活動을 始作했다. 이것은 金東仁보다는 5年, 玄鎮健보다는 4年, 그리고 廉想涉보다는 3年 늦게 作品 活動을 始作한 셈이다. 「故國」이 發表되기 以前에도 「吐血」(1924. 1.) 등의 作品이 發表된 바 없지 않지만 그것 역시 1924年에 들어 와서 發表된 것이다. 그러므로 曙海에게는 이 해가 그의 文學的 生涯에 있어서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이 때부터 그가 죽은 1932年까지 약 8年間 그는 무려 50편에 가까운 短篇과 1편의 長篇을 남기고 있다. 多作的 作家요, 同時에 그것은 그가 問題意識과 傳達하고자 하는 <맺시지>가 남다르게 強烈했다는 예기도 된다.

1920年代는 韓國小說史에 重要的 자리를 차지하는 時期다. 近代小說의 性格을 띤 小說이 20年代에 들어 와서 比較的 成熟·開花했다는 點에서 重

## 要視 된다

20世紀 韓國小說은 李人種의 「血의 淚」등 新小說에서부터 近代의 性格을 띠었고 그것이 春園의 初期小說을 거쳐 「無情」(1917년)에 이르러 어느 정도 成熟·洗鍊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小說에서 發見되는 것은 啓蒙, 自由戀愛, 迷信打破, 男女平等이라는 素朴한 世界가 追求되고 있으며, 藝術的 形象化에 있어서도 未洽한 點을 도처에서 發見하게 된다. 特히 時代精神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親日反淸」의 口號가 小說의 到處에 散見되는 점을 볼 때 作家精神의 貧困과 限界를 그대로 보여 준다. 아직도 人間과 社會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리얼리즘의 精神이 희박하고 現實의 皮相의인 面만을 보고 있다는 느낌조차 있다.

20年代에 들어 와서 韓國小說은 現實을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問題를 찾아 그것을 形象化하여 讀者에게 提示하는 一連의 小說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보다 近代小說의 本領에 충실하는 제작태도이다. 이를테면 金東仁, 玄鎭健, 康想涉, 崔曙海등 20年代 作家들은 韓國小說을 깊이 있게 추적하고 擴大시킨 卓越한 作家들이다.

이들 作家들은 年令도 비슷하고 作品 活動도 비슷한 時期에 이루어졌다. 康想涉이 1897年生이고, 金東仁과 玄鎭健은 똑같이 1900年生이며 崔曙海는 이들보다 한 해 뒤인 1901年生이다. 기껏해야 3·4세의 差異가 있다. 作品活動의 出發에 있어서 4·5年間의 差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小說史의 觀點에서 볼 때, 그렇게 큰 問題가 될 수 없다. 때문에 20年代의 이들의 作品活動은 거의 同時에 이루어졌고 그 先後가 問題가 아니라 作家마다의 個性과 作品世界가 다르다는 데 눈을 돌릴 必要가 있다.

이들 作家는 꼭 같은 植民地 現實 속에 살고 있었으며, 꼭 같은 社會와 꼭 같은 價値觀이 支配하는 時代에 作品 活動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作品世界는 각각 다르다. 그것은 作家의 個性에서 緣由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崔曙海가 登場했을 때, 당시의 一部 評家들은 過去의 小說 即 金東仁, 玄鎭健, 康想涉, 羅稻香, 田榮澤等の 小說에 대한 〈안티체제〉

의 것으로 解釋했고 또 그것이 事實인 양 받아들여진 적도 없지 않다. 거  
 것해야 4·5年間に 있었던 小說들에 대한 <안티테제>라는 것은 긴 小說史  
 의 흐름에서 볼 때 正確한 診斷인지 의심스럽다. 強한 個性과 獨立的인  
 世界를 지닌 作家의 出現을 過去의 小說의 <안티테제>로 받아들인 것은  
 思考의 單純性에서 빚어진 것이다.

崔曙海의 小說은 同時代의 다른 作家들의 그것과는 特異한 것이 사실이  
 다. 그러한 特異性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曙海小說의  
 內部構造의 分析을 通하여 探索해 보려는 것이 이 論考의 目的이다.

## Ⅱ. 特異한 體驗

文學은, 特히 그 中에서도 小說은 作家의 體驗을 作品의 素材로 取하는  
 경우가 많다.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대개의 作家는 그가 體驗한 素材를  
 作品化하게 마련이다. 崔曙海의 경우는 스스로 體驗한 素材를 作品化하는  
 데 同時代의 다른 作家들보다 두드러진다. 그의 作品은 대체로 曙海 自身  
 의 몸소 體驗한 것을 作品化하고 있다. <푸로>作家라는 당시의 批評家들  
 의 見解에 대해서 崔曙海는 自己는 決코 <푸로>作家가 아니라 自己가 經  
 驗한 것은 反抗과 貧困 뿐이었기 때문에 自己의 作品世界가 그것으로 가  
 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피력함으로써<sup>1)</sup> 그 自身의 體驗을 作品化하고  
 있음을 暗示한 바도 있다. 曙海의 文學을 論하는 자리에서도 「體驗의 文  
 學」으로 說明하는 경우<sup>2)</sup>가 적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의 文學을 通讀하고  
 나면 누구나 그런 結論을 얻게 된다.

作品은 作家의 손에서 떠난 이상 讀者의 것이다. 때문에 作品研究는 作  
 家와 分離해서 그 作品만을 가지고 檢討되는 것이 所望스러운 일  
 이다. 그러나 때로는 作品 그것을 理解하기 위해서 補助科學의 援用을 빌

1) 金東仁: 近代小說考(東仁全集, 8卷) 弘字出版社, 1966 p. 598

2) a)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1961, p. 584

b) 金基鉉: 崔曙海의 逸話(石塔의 원자들), 高大出版社, 1973. pp. 48-49

c)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書社, 1973, p. 160

때도 있는 것처럼 作家의 生涯와 思想을 理解하고 나면 作品의 眞髓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崔曙海의 小説은 대체로 그의 生活體驗의 再現이라는 點을 想到할 때, 그의 生涯의 片鱗을 더듬어 보는 것은 作品 理解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生涯中에서 가장 重要한 意味를 띠는 것은 滿州에서의 生活과 歸國後 國境地帶에서 勞動을 한 일이다. 그의 年譜에 따르면<sup>3)</sup> 1917年 滿16才 때에 만주로 건너가 1923年 봄 22才 때에 歸國하여 노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崔曙海는 만주에서의 生活과 國境지대에서 노동을 했던 체험을 作品 속에 많이 投影시키고 있는데, 그 당시의 片鱗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曙海는 間島에서 普通 사람들이 想像도 할 수 없는 苦生을 한 모양이다. 어떤 때는 상투잡이가 되어 나뭇바리 장수도 하여 보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되놈한테 붙들리어 죽을 꿈이도 넘겨 보고, 두 부장수도 하여보고 노동판에서 什長 노릇도 하여보고, XX단(독립단으로 추정됨=引用者)에 따라다니노라고 총을 메고 눈 싸윈 얼음벌판도 헤매다가 총에 맞아 죽은 동지의 屍體를 혼자서 어름 벌판에서 밤을 새어가며 지켜보기 等等—이러한 몇 가지 實例를 보드라도 曙海는 한 개의 「小説의 人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이것은 曙海의 친구인 朴祥燁의 證言이다. 그 正確性 與否를 따져 약간의 錯誤가 있다고 하더라도 曙海의 間島生活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小説을 通讀하고 냈을 때,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의 소설 도처에 散見된다.

20年代에 活動했던 作家들—이를테면 金東仁, 玄鎭健, 康想涉, 田榮澤 등의 공통점은 日本式 教育을 받은 東京 留學生이었다는 點이다. 이들은

3) a) 金容誠：韓國文學史探訪，國民書館，1973. p.178

b)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崔曙海篇)，文元閣，1974. p.281

4) 朴祥燁：曙海와 그의 劇的 生涯(朝鮮文壇 1936年 7月號)

대체로 感受性이 銳敏한 少年時節을 주로 日本에서 보였으며 또 그곳에서 文學修業을 익혀 나갔다. 東京 유학을 마치고 歸國한 후에도 新教育을 받은 것을 背景으로 하여 新聞·雜誌의 記者가 되거나 學校 敎員을 지냈다. 이들은 上記한 職業에 從事하면서 그 余暇에 作品 活動을 했다. 이들의 父母는 대체로 당시의 社會的 與件으로서는 비교적 일찍 開化에 눈을 떴고 또 어느 정도의 經濟的 여유를 가졌다. 그 結果로 이들은 東京에 유학을 가서 工夫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의 生活舞臺는 서울을 中心으로 한 都市였고 同時代의 韓國人들 가운데는 比較的 先進文化의 洗禮도 많이 받았다. 當時의 時代的 與件으로는 가장 教育을 많이 받은 階層이요, 知識人이며 또 社會的 指導者의 位置에 있었다. 그들은 植民地 知識人이 받아야 할 고통을 누구 못지 않게 받았지만 植民地 現實을 보는 눈은 知識人의 것이었고 또 少數의 指導者의 것이었다. 貧困과 病魔에 시달리는 大多數 一般民衆의 生活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現實을 보는 眼目에 있어서도 觀察者 내지 觀照者로서 植民地 現實과 狀況을 아파하고 괴로워 했을 뿐이다. 때문에 極度の 貧窮 속에 허덕이는 一般民衆의 체험을 自己의 체험으로 受容하는 데는 未洽했고 또 그들의 連帶感情이나 連帶意識이 比較的 強하지 못했다.

그것에 比하면 同時代의 作家이면서 崔曙海의 그것은 아주 異質的인 것이다. 그는 學校라고는 시골에서 普通學校를 3年(또는 5年)을 다닌 것 외에 日本式 教育을 거의 받지 않았다. 또 그의 生活圈이 咸北의 벽지거나 間島라는 特殊한 地方이었다. 그는 感受性이 예민한 少年時節을 貧窮 속에 허덕였고 青年期에 접어 들면서 朴祥輝의 證言대로 間島에서 貧窮과 流浪이 계속되는 生活을 했다. 때문에 同時代의 다른 作家들처럼 日本式 教育을 덜 받은 대신 近代的인 文化의 洗禮도 비교적 덜 받았다. 다른 作家들이 日本 또는 都市에서 文學修業을 하는 동안 그는 間島에서, 또는 國境의 會寧地方에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習作을 계속했다.<sup>5)</sup>

5) 金基鉉 : op. cit. p. 49

당연히 그의 作品世界도 同時代의 다른 作家들과는 異하게 異한다. 그는 비교적 洗鍊되지 못한 技巧로 自己의 체험을, 特別히 貧窮의 問題를 作品 속에 投影시켜 나갔다. 그러므로 그의 小說에 一貫된 問題意識은 觀念的인 것이 아니라 체험을 通해 얻어진 生생한 것이다.

## Ⅱ. 作 品 世 界

曙海小說의 一貫된 問題意識은 植民地時代(1920年代) 植民地 「朝鮮人」의 貧窮의 樣相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貧窮의 問題에 作家眼을 돌리고 그 底邊을 追跡해 나아갔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로 植民地 <朝鮮人>의 貧窮狀態를 세 가지 樣相으로 포착하고 있다.

첫째는 間島로 流浪을 떠난 流浪民들의 問題다. 「脫出記」, 「飢餓와 殺戮」, 「紅焰」, 「만두」, 「故國」, 「도라가는 날」등 그의 問題作에 屬하는 소설들이 대체로 여기에 該當된다.

이 나라가 日本의 植民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間島等地로 流浪해 갔다. 혹은 亡命客으로, 혹은 土地의 수탈에 따른 새로운 農土를 찾으러 間島로 유랑해 간 사람이 적지 않았다.

曙海小說에 나오는 作中人物들은 대체로 植民地 <朝鮮>에서는 살아 갈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 간도로 건너 간 一般民衆들이다. 「脫出記」의 <나>와 「紅焰」의 <문서방>과 「飢餓와 殺戮」의 <경수>는 그 代表의 人物이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中略), 간도는 천부금땅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 적경도 될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 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간도 갈 때의 내 머리 속에 그리었던 이상이였다」<sup>6)</sup>

〈脫出記(1925)〉

6)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崔曙海篇), 文元閣, 1974. p.19

曙海小説의 作中人物들이 間島에 건너 간 理由는 대체로 植民地 <朝鮮>에서는 살 수가 없어 새로운 살 길을 찾기 위한 苦行의 길이다. 「脫出記」의 主人公이 그러하고 「故國」(1924)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이 많다. 거개가 생활 곤란으로 와 있고 혹은 남의 돈 지고 도망한 자, 남의 재집을 빼가지고 온 자, 순사 다니다가 횡령한 자, 노름질 하다가 쫓긴 자, 살인한 자, 의병다 니던 자 별별 흉한 것들이 모여서 군데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냥도 하며 목축도 하며 농사도 하며 불한당질도 한다」<sup>7)</sup>

<傍点=引用者> <故國(1924)>

여러 가지 類型의 人間이 간도에 몰려 들기는 했지만 그 대다수는 <生活困難>으로 와 있음을 보게 된다.

「紅焰」의 <문서방>도 京畿道에서 小作을 하다가 아무래도 살 수 없어 間島로 건너 간 人物이다.

이처럼 間島로 건너 간 첫째 理由는 植民地 <朝鮮>에서는 살아 갈 수가 없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또 間島에 건너가면 「脫出記」의 主人公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期待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間島行이 막연한 期待에서 緣由했다는 것은 間島에 到着하고 난 후의 생활에서 엿 보게 된다.

「그러나 나의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中略)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인(支那人)의 밭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한다. 일년 내 중국 사람에게서 양식을 꾸어 먹고 도조나 타조를 얻는 대야 일년 양식 빛도 못 될 것이고 또 나 같은 시로도(아마추어)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sup>8)</sup>

<脫出記>

開拓할 땅은 커녕 小作人도 되지 못해 「脫出記」의 主人公 <나>는 날품

7) 上掲書. p.15

8) 上掲書. p.19

밭이 생활이 始作된다. 家族의 生計를 위하여 구들고치는 일, 가마 불이  
는 일, 꼴 베는 일, 대구어 장사, 두부장수까지 해야 했다. 간도로 건너  
갈 때 「삼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는 당초의 생각과는 달  
리 蠶伐을 하다가 中國人 警察에 붙잡혀 매를 맞기도 했다.

그렇다고 혹시 中國人을 사귀고 그 小作人이 되면 그나마 살 수 있겠  
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紅焰」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 준다.

「경기도서도 소작인 십년에 겨족만 먹다가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여 남부  
여대로 말 하나 앞세우고 이 서간도로 찾아 들었더니 여기서도 그네를 맞아  
주는 것은 지광사리(小作人)였다. 이름만 달랐지 역시 소작인이다. 들어 오  
는 해는 흉년이었으나 늦게 들어 와서 얼마 심지 못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흉  
년으로 말미암아 일년 내 꾸어 먹은 것도 있거니와 소작료도 못 갚아서 인  
(股)가에게 배까지 얻어 맞고 금년으로 밀었더니 금년에도 흉년이 겼다.」<sup>9)</sup>

〈紅焰(1927)〉

間島는 流浪民의 安息處가 아니었다. 間島를 開拓하고 理想村을 건설  
하겠다는 것이 한낱 幻想이었고, 土地가 없어 農事를 짓지 못했을 뿐더러  
小作을 한다고 해도 凶年과 小作料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삶>  
을 찾아 나선 流浪民의 實相이다.

流浪民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마적떼의 습격이라는 또  
하나의 試鍊과 恐怖가 기다리고 있다.

「그네들의 동리는 북간도 한 구석이었다. 그네들도 조선서 끌려 들어서 함  
한 간도 한 구석에 부락을 이루고 감자와 강냉이 농사를 하여 근근히 연명하  
였다. 그러나 그네에게는 행복이 없었다. 가을이 되어 추수 때나 여름 산삼,  
녹용 때가 되면 마적의 떼가 모여 들어서 그네를 괴롭게 하였다. 다시 내  
지<sup>10)</sup>로 갈 수 없고 또 다른 떼를 더 갈 수 없는 그네에게는 죽음밖에 없었  
다.」<sup>11)</sup>

〈도라가는날(1926)〉

9) 朝鮮文壇(1927年 1月號) p.78

10) 보통 「내지」를 日本으로 지칭했으나, 이 소설에서는 식민지 <朝鮮> 을 지칭  
한 것으로 생각됨.

11)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pp. 227-228



間島로 흘러 간 流浪民의 생활은 極限狀況의 것으로 深化되어 간다.

「紅焰」의 〈문서방〉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못하여 中國人 地主인 인(殷)가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은 引用文에서 보았다. 그런 生活이 계속되는 동안 無男獨女인 딸을 빼앗기고 말았다. 어린 딸이 中國人 地主에게 짓눌려 凌辱당하는 모습을 幻想속에 그리면서 〈문서방〉夫婦는 탄식과 절규를 계속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문서방〉의 아내는 빼앗긴 딸을 잊지 못해 끝내는 發狂하여 검붉은 피를 吐하고 죽어 버린다. 분노가 극도에 치민 〈문서방〉은 地主의 집에 放火하고 또 地主를 죽이게 된다.

「飢餓와 殺戮」(1925)의 〈경수〉도 間島로 흘러간 流浪民이다. 〈小作人〉도 못되어 盜伐을 한다. 때문에 굶어 지내는 일이 많았고 그 아내는 產後 風으로 앓고 있다. 盜伐을 하는 동안 불잡히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 지내다가 집에 돌아 오면 집세를 내라는 집 주인의 독촉에 시달린다. 그 위에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굶어 지내는 일을 보게 된다. 앓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하여 醫師를 찾고 있지만 非情한 醫師는 터무니 없는 契約條件을 내세워 치료를 拒否하고, 또 藥師라는 者도 藥을 주지 않는다. 이런 苦痛 가운데 老母는 머리를 잘라 좁쌀 몇 되를 사오다가 中國人의 개에게 물린다. 〈경수〉는 二重, 三重의 逆境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경수〉는 非情한 世上 人心에 極度の 분노를 느끼고 發狂直前의 흥분 속에서 그의 家族을 沒殺하고 中國人 警察을 殺害한다.

이렇게 流浪民들은 기아와 병마와 공포의 三重의 苦痛과 試鍊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낸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느냐 하는 상황은 「脫出記」의 임신한 〈아내〉가 길에 버린 굴겉질을 주워 먹는다든지, 「만두」의 主人公의 만두를 훔쳐 먹는 데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希望을 찾아 間島로 건너 간 植民地 〈朝鮮人〉의 빈궁의 實相을 克明하게 보여 준 것이 이들 小說이다.

이들 소설의 作中人物들은 單純한 個人으로 登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窮乏으로 인해 間島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1920年代의 植

民地〈朝鮮人〉들— 특히 民衆들의 實相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당시의 一般民衆들은 거의가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그 위에다 總督府의 유형무형의 탄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한 마디로 〈살아 갈 수가 없다〉는 極限狀況 속에 빠져 들어 갔다. 이러한 實相의 片鱗을 다음과 같은 資料가 뒷받침해 준다.

「最近 朝鮮人は 〈우리들은 죽을 밖에는 길이 없다.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을 거의 流行語와 같이 입에 담는 것을 본다.……그렇다, 〈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말은 다만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事實의 實際現象으로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고장에서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의 數가 느는 反面 이곳을 떠나는 것은 무슨 방법이 서지 않을까 해서 南으로 바다 건너 日本으로 가고 北으로 江을 건너 南北滿洲와 露領으로 가는 사람의 數도 날로 增加하고 있다. 그들이 삶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로 向하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農業國의 保守性을 띤 農民들이 故土를 떠나는 그 勇斷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과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은 사실 이때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朝鮮에서 살 수 없는 그들이 保障없는 外地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생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남아 죽음의 길을 擇하는 사람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다.」<sup>12)</sup>

그리고 다음의 資料는 위의 사실을 確認해 주고 있다.

「나날이 닥쳐 오는 生活難으로 滿洲의 광야를 向하여 北으로 北으로 멀리 逐出되는 白衣民族의 무리가 해를 따라 增加된다. 올해에도 가을 以後 京畿道 楊平을 비롯하여 江原道の 各處에서 移住하는 사람이 多數이었음은 屢報하였지만, 그들은 故國에서도 命을 이룰 수 없으므로, 山川風俗 다른 異域에서 活路를 찾기 위하여 西北間島로 向하는 途中, 酷烈한 大陸의 寒風에 無慘히도 凍死하는 悲絶한 일이 屢屢히 있다. 九月에도 江原道에 原籍을 둔 金某는 妻와 兒린에 셋을 데리고 間島로 가는 길에 會寧의 對岸 大嶺을 넘

12) 이 資料(調査資料)는 총독부 警務局이 신문검열에서 적출해 낸 것으로 〈押收〉된 〈朝鮮文記事〉를 〈日本文〉으로 번역한 것. 이것을 洪以燮교수가 다시 〈한글〉로 復元한 것. 1926년 7월 18일자 東亞日報의 社説인 「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의 一部.

洪以燮: 1920년대 植民地의 現實(文學과 知性, 1972년 봄號) pp. 112-113

어 龍井村으로 가는 途中 어린애 셋은 다 얼어 죽고, 夫婦도 全身이 얼어 쓰러진 것을 局子街의 同胞들이 發見하여 急遽 救助中이라 한다.<sup>13)</sup>

이 資料와 曙海小說을 對照하면 그 內容이 거의 一致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曙海는 단순한 個人的 苦痛을 그리기 위해서 小說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一般民衆의 삶의 모습을 表現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그것을 作品化한 것이다. 때문에 「紅焰」의 〈문서방〉이나 「飢餓의 殺戮」의 〈경수〉는 단순한 個人이 아니라 당시의 一般民衆의 實相을 象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曙海小說의 主人公의 고통과 시련은 植民地 民衆들의 고통 그것이다. 이것은 植民地 現實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무엇이 問題點인가를 드러내 보여 준 것이다.

물컾는 대체로 咸鏡道 地方을 中心으로 한 農民과 勞動者들의 生活樣相을 通하여 民衆의 極貧狀況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큰물 진 뒤」, 「朴 췌의 죽음」, 「그믐 밤」, 「무서운 印象」, 「棄兒」, 「人情」, 「落魄不遇」등 諸 作品이 여기에 該當된다.

「큰물 진 뒤」는 洪水로 因하여 집과 農土,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잃고 막벌이를 하는 사람의 얘기다.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처자를 잃은 무리들은 거기서 삼십리나 되는 읍으로 나갔다. 〈운호〉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네들은 읍에 나가서 정거장의 노동자, 물지게꾼, 구들고치는 사람. — 이렇게 그날 그날을 보내었다. 어떤 자는 이집 저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었다. 〈운호〉도 집 짓는데 돌아다니면서 흙을 져 날랐다. 그의 아내의 병은 나날이 심하였다. 바짝 말랐던 사람이 퉁퉁 부어서 멀쩡해 되었다.<sup>14)</sup>

〈큰물 진 뒤(1925)〉

이런 極甚한 貧困 가운데 그나마 흙을 져 나르는 막벌이를 한다. 때로는 아침을 굶은 채 일터로 나간다. 그날 따라 지겟다리가 부러져 한시간 동안 일을 못했고 이것이 감독의 눈에 들켰다. 왜 늦게 나왔느냐는 호통

13) 上記資料. 1926년 12월 22일. 朝鮮日報의 記事

洪以燮: 上記論文. p. 113

14)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A-6) p. 32

에 지렛다리가 부러져서 고치노라고 늦었다는 대답을 했지만 말대답을 한다고 뺨을 얻어 맞고, 미간을 주먹으로 얻어 맞은 것은 둘째 두고 감독의 발길질에 배를 얻어 맞는 困辱을 치른다. <윤호>는 울면서 지게를 진 채 땅에 꺼꾸러져 코에서는 시뻘건 선지피를 흘려야 했다.

도대체 人間的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農土와 집을 잃고 어린 아 이마저 잃은 데다 아내마저 병들어 누워 있다. 아침도 굶은 채 일 터로 나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 상황은 人間을 二重, 三重의 苦痛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人間的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은 余地의 小說에도 많이 나온다.

「朴堧의 죽음」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외아들을 잃어 버리고 發狂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요, 「그믐밤」은 農土를 주겠다는 꾀임에 빠져 목의 살을 빼어 주었다가 죽음을 당한 어느 머슴의 얘기다. 「棄兒」는 굶주리다 지쳐 어린 자식을 버린 지렛군의 이야기요, 「人情」도 굶주리다 지쳐 서투른 도적질을 나섰다가 눈을 잃어 버리는 역시 지렛군의 이야기다. 「落魄不遇」는 가난에 시달리다 지쳐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夜間逃走한 <날뽕팔이>의 이야기요, 「무서운 印象」은 국경지대에서 정거장에 흠어진 콩을 싣다가 기차에 치어 죽은 어느 老婆의 이야기다.

그 어느 作品이건 作中人物들은 變變한 職業도 없고 기껏 한다는 게 <지렛군>이요, <날뽕팔이>다. 貧窮과 病魔에 시달리는 것이 이들이다. 때문에 이들의 最大의 關心事는 먹고 살아가는 問題와 앓아 누워 있는 가족을 치료해야 한다는 절박한 것이다. 그러나 워낙 貧窮 속에 있기 때문에 이 問題를 해결하지 못해 發狂直前의 極限狀況 속에 들어가 절도를 하거나 妻子息을 버리고 夜間逃走하거나 發狂해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植民地 時代 大多數 一般民衆의 生活樣相과 直結된다. 大多數 一般民衆은 飢餓線上에 있었고 變變히 敎育조차 받지 못했다. 그것이 1920年代 植民地 <朝鮮>의 現實이다.

셋째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 와 雜誌社 일을 보거나 글을 쓰는 人物들의 生活樣相이다. 「錢아辭」,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八個月」, 「轉機」

등의 小說이 여기에 該當된다. 이들은 雜誌社 일을 보거나 글(詩 또는 小說)을 쓰기는 하지만 가난 속에 있기는 앞에 檢討한 두가지 貧窮의 樣相과 비슷하다. 이들 소설에서 다루어진 貧窮의 問題는 前記한 間島의 流浪民이나 社會低層의 人物들처럼 貧窮의 極限狀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도 貧困에 시달리고 있다는 点에서는 共通된다.

「錢아辭」의 주인공은 시골에서 脫家하여 서울로 올라 와 雜誌社의 일을 보다 그것도 失職하여 구두 고치는 일을 한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K>는 번역도 하고 記者生活도 하지만 생활이 안 되어 病에 걸려 죽은 文人이다. 「八個月」의 <나>도 詩를 쓰는 人物로 病들어 있다.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8個月 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醫師의 診斷을 받고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轉機」의 主人公도 雜誌社에서 일을 하지만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세번째의 樣相은 都市의 知識層의 貧困의 問題를 다룬 것으로 植民地 時代 우리 나라 知識層의 처해 있었던 狀況의 한 斷面을 보게 된다.

20年代 小說 가운데 貧困의 問題를 追求한 것은 曙海小說만은 아니다. 金東仁의 「감자」(1925), 玄鎮健의 「운수좋은 날」(1924), 「故鄉」(1926), 「私立精神病院長」(1926) 등에도 이 問題가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小說에서는 貧困의 問題를 作家 自身の 것으로 受容하여 거기에서 問題를 發見하고 追求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서 觀察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觀察者의 것이다. 그만큼 呼訴力과 迫眞感, 그리고 切實性이라는 点에서 曙海의 그것과는 다르다. 曙海의 그것은 作中人物과 作家와의 거리가 없다. 作中人物의 呼訴와 絶叫는 作家의 그것처럼 들린다. 그만큼 曙海는 貧困의 問題를 自己의 것으로 受容하고 거기서 빚어내는 아픔을 呼訴하고 絶叫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曙海小說이 曙海 自身の 體驗을 基底로 해서 이루어진 데서 緣由한 것이다. 間島의 流浪民의 貧窮도 曙海 自身の 實生活과 類似하고 曙海 自身の 體驗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曙海는 植民地 時代(1920年代) <朝鮮人>의 貧窮의 問題를 觀察者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體驗者의 그것에서 問題를 찾았다는 데 다른 作家와 다른 特異性이 있고 그것이 讀者에게 切實하게 닥아 오는 理由가 될 것이다. 20年代 殖民地 <朝鮮>의 現實을 貧窮이라는 側面에서 이렇게 銳利하게 追求했다는 것은 曙海小說이 큰 問題點을 던져 주는 것이다. 당시의 貧窮의 問題는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問題였고 土地收奪등으로 因한 窮乏化 現象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作家意識이 健全性을 뜻하고, 또 우리의 소설이 民衆의 生活과 直結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갔다. 그의 소설 가운데 滿洲의 流浪民의 貧窮의 樣相을 그린 소설과 社會 低層의 一般 民衆의 그것을 그린 소설이 都市 知識人의 貧窮生活을 그린 것보다 훨씬 優秀하다는 것은 그의 소설의 特徵을 端的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曙海가 大多數 一般民衆과 더불어 連帶意識이나 連帶感情이 깊었다는 것을 뜻하며 또 그것은 상당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曙海는 同時代의 어느 作家보다도 一般民衆의 意識의 深層部를 透視하는 눈이 있었고 民衆이 안고 있는 가장 重要한 問題에 接近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觀照者의 立場에서 民衆의 아픔을 告發·證言한 것이 아니라 貧窮 속에 허덕이는 民衆의 一員으로서 그 貧窮을 克服하고 呼訴했다는 것은 文學이 단순히 生活의 餘暇를 즐기는 愛玩物이 아니라는 實證을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은 民衆에 對한 깊은 理解와 愛情, 그리고 連帶意識이 없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崔曙海는 1920年代 中期, 우리 文壇의 침체의 原因과 對策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原因→나는 文壇을 보는 世에 文壇 그것만을 따로 世에 보지 않는다. 文壇과 民衆生活과는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文壇의 침체는 그 文壇을 지어내는 우리 民衆生活의 沈滯에 있는 줄로 맞는다.

對策→쌀키를 내인 露西亞의 民衆生活은 그만큼 偉大하였다. 로멘로렌을 産出한 佛國 民衆의 生活은 그만큼 偉大하였다. 그럼으로 우리 문단 침체의 對策을 講究하기 前에 먼저 우리 民衆生活의 振興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sup>15)</sup>

15) 「문단 침체의 原因과 그 對策」에 대한 崔曙海의 見解(朝鮮文壇, 1927年 1月號) p. 29

이것은 民衆의 生活과 文壇과의 有機的 關係가 있음을 말한 것이지만 그 底邊에는 民衆에 對한 理解와 連帶意識 위에서 作品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暗示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民衆意識의 所産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20年代 植民地 一般民衆은 貧窮의 極限狀況에 있었고 이런 現實을 證言한 것은 상당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그것이 우리의 小說을 擴大·深化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 IV. 技術의 諸相

##### <1> 性格 創造

曙海小說의 作中人物을 便宜上 다음 4個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A型→나(脫出記), 경수(飢餓과 殺戮), 운호(큰물진 뒤), 운심(故國), 나(만두), 창화(도라가는 날), 나(무서운 印象)등.

B型→변기운(錢아辭), K(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나(葛藤), 나(八個月), 나(落魄不遇), 박인화(轉機), 서방님(금봉어), 나(主人아씨), 나(白琴), 나(東大門), 유원(拾參圓)등.

C型→문서방(紅焰), 과충택(朴君의 죽음), 삼돌(그믐밤), 순남(누이동생을 따라), 그사내(落魄不遇), 김철호(棄兒), 지깃군(人情), 아내(紅焰), 학범어미(暴君)등.

D型→이주사(큰물진 뒤), 의사 김초시(朴君의 죽음), 최의사(飢餓과 殺戮), 中國人 殷哥(紅焰), 춘삼(暴君)등.

多少 機械的인 分類가 되었지만 A型和 B型은 曙海 自身の 그림자가 짙게 投影된 人物群이다. 植民地時代 貧窮 속에서 살다가 간 曙海 自身の 모습을 作品 속에 投影시킨 人物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型의 人物들이 曙海가 上京하기 前 間島와 咸鏡北道 地方에서 살았던 때의 한 側面이라면 B型의 人物들은 上京後, 雜誌 또는 新聞社 등에서 일을 보던 때의 曙海의 한 側面이다. 대체로 A型의 人物들이 登場하는

小説이 貧窮의 問題를 깊이 追跡한 데 비하면 B型의 人物이 登場하는 小説에서는 그러한 追跡이 前者의 그것만큼 切實하지 않다. 그 中에는 身邊雜事를 그대로 나열한 듯한 小説도 없지 않다. 社會의 밑바닥에서 날품팔이를 하던 때의 曙海 自身の 體驗을 小説化한 것이 後에 作家로서 또는 雜誌社 記者로서 그가 體驗한 것을 小説化한 것보다 더 迫眞感을 준다.

C型의 人物들은 A型의 人物群과 아주 비슷한 狀況에 있다. 그러나 A型과 같은 狀況에 있으면서도 대체로 事物에 對한 知的 認識能力에 있어서 A型의 그것보다 뒤떨어진다. A型의 人物群은 그것이 극히 미미한 것일지라도 教育을 받은 人物들이라는 印象을 주는데 C型의 人物들은 전혀 教育을 받지 못한 人物로 보인다. 시골이나 間島等地에서 막벌이를 하는 無識하고 가난한 植民地 一般民衆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曙海가 막벌이 노동을 할 때 그의 周邊에서 흔히 發見될 수 있는 人物群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무서운 印象」의 <나>가 曙海 自身이라면 <콩밭이>는 曙海가 노동하던 時節에 그의 周邊에서 發見하게 된 人物이라는 印象을 주고 있는데, 이런 <콩밭이>와 같은 階層의 人物이 C型이다.

이들을 登場시킨 小説에 있어서도 貧窮의 問題는 迫眞感 있게 追跡되고 있다. 또 이들의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준 것은 당시 一般民衆의 生活의 樣相 그것을 드러내 보여 준 것이다. 이들의 貧窮은 곧 당시의 一般民衆의 貧窮 그것이며 이들의 苦憫과 呼訴와 絶叫은 곧 당시 一般民衆의 그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A·B·C型의 人物群이 曙海의 옹호를 받고 대체로 肯定的으로 그려져 있는데 비하면 D型의 人物은 否定的으로 그려져 있다. 「큰물 진 뒤」의 <이주사>는 돈과 계집밖에 모르는 人物로 그려져 있고, 「林垺의 죽음」의 <의사김초시>와 「飢饉와 殺戮」의 <최의사>는 돈이 없다는 理由로 죽어가는 病든 患者의 治療을 拒否하는 人物로 그려져 있다. 「紅焰」의 中國人 地主 <股哥>는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小作人의 딸을 빼앗아가는 非情한 人物로 登場한다. 결국 曙海가 가장 否定했던 人物이 非情한 醫師요, 돈과 계집밖에 모르는 <이주사>정도다. 地主라고 해야 같은 民族



이 아닌 外國人이다. 階級意識 云云한 당시의 浮世批評家들의 見解에 따르면 有産階級の 人物들이 많이 登場하고 이들의 否定的 側面을 많이 다루었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醫師의 非情은 世態의 斷面일 뿐이요 中國人 地主의 非情은 다른 次元에서 얘기될 問題다. 그 많은 作中人物들 가운데 否定的인 人物이 이 程度밖에 안 된다는 것은 曙海小說이 貧窮에 處한 植民地 朝鮮人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호소와 絶叫이지 階級意識을 가지고 作品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체로 A型和 C型の 人物들은 스스로의 貧窮에 대한 그 호소나 絶叫, 그리고 非情한 世態에 대한 反抗이 激烈하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善良하던 인물들로 登場하지만 結末에 가서는 殺人, 放火, 또는 家族을 버리고 逃走해 버린다.

E·M·포오스터의 見解를 빌면 round character<sup>16)</sup>요, E·뮤어의 見解에 따르면 dramatic figure<sup>17)</sup>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飢餓와 殺戮」의 〈경수〉, 「紅焰」의 〈문서방〉, 「큰물진 뒤」의 〈윤호〉, 「朴堧의 죽음」의 〈과충택〉, 「脫出記」의 〈나〉등은 두드러진 立体的 人物(round character)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들 인물들은 처음 登場할 때는 순박하고 善良한 인물이지만 小說이 進行되는 동안 점차 그 行動이 激烈해지고 結末에 가서는 發狂, 殺人, 放火하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인물의 性格이 多樣하게 그려져 있고 그 行動이 迫眞感을 준다.

「脫出記」의 〈나〉는 아내와 老母를 먹여 살릴 길이 없어지자 脫家해 버린다. 家族의 生計를 짊어진 〈나〉가 있어도 家族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더구나 家長인 〈나〉가 없어지면 더욱 더 굶주리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脫家한다. 常識적으로 그의 行動은 容納될 수 없는 일이지만 曙海는 〈나〉의 行動을 肯定的으로 바라보고 說得力 있게 讀者를 誘導해 나아간다. 「紅焰」의 〈문서방〉의 放火, 殺人, 「飢餓와 殺戮」의 〈경수〉의 殺人劇, 「朴堧의 죽음」의 〈과충택〉의 發狂등은 참으로 그 行動이 激烈하고

16) E. M. Forster : Aspects of the novel, p. 85

17) Edwin Muir : The structure of the novel, p. 142

소름끼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作中人物들은 처음 登場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善良한 인물이었다. 結末에 가서 전혀 새로운 인물처럼 그려지는 것은 立体的人物이라는 結論을 내리게 된다. 立体的人物이 登場하는 小説이 比較的 問題作으로 보인다.

이런 立体的人物은 20年代 作家들 가운데 金東仁의 小説에서는 많이 發見되지만 余他의 作家의 小説에서는 發見하기 힘든 것이다. 그만큼 迫眞感和 生動感을 주는 人物群이다.

作中人物을 提示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대체로 解說的 方法을 取하고 있다. 描寫보다도 叙述에 많이 依存돼 있으며 作中人物의 性格과 行動을 解說해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一部 立体的人物에 있어서는 心理變化와 行動의 多樣性으로 因하여 그 나름의 生動感和 迫眞感을 주고 있지만 余他의 인물들은 生動感이 없고 曙海의 觀念의 꼭두각시와 같은 印象을 준다. 그의 小説을 읽고 나서 作中人物에 대한 曙海의 說明은 記憶되지만 作中人物의 모습이나 行動을 視覺的으로 느끼게 하는 그것은 없다. 그것은 小説技術의 不足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풀 릇

曙海小説의 풀릇의 展開方式은 대체로 現實的 時間의 順序대로 進行되고 있다. 現實的 時間의 順序가 a-b-c로 進行된다면 曙海의 小説은 대체로 現實的 時間의 順序인 a-b-c에 依存되고 있다.

紅焰, 故國, 錢아辭, 棄兒, 葛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누이동생을 따라, 白琴등 몇 개의 小説에 있어서는 現在의 事件을 叙述하다가 過去의 事件이 조금 나오고, 다시 現在의 事件을 進行시키는 b-a-b-c의 方法이 部分的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a-b-c에 依存되고 있다. 이것은 事件을 立体的으로 構成하지 못하고 平面的으로 展開시킨 結果다. 그것은 事件 進行이 가장 單調로운 方法이고 單純하기 때문에 그의 小説의 즐거리를 理解하기는 쉬우나 그 대신 緊張感이 없어지고 構成美를 찾을 수 없다는 弱點이 있다. 現實에서 일어나는 事件이 바로 그렇고 傳統的인 說話

의 方法이 또한 그렇다. 때문에 대부분의 讀者는 이런 事件의 進行에 열증을 느끼고 있다.

曙海는 現實에서 素材를 끌어다가 그것을 完全히 消化하고 料理해서 다시 再構成하여 하나의 完全한 作品(藝術品)을 제작하는 過程이 未熟하다. 素材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時間의 倒錯, 價値있는 問題의 選擇, 意味있는 事件의 形象化등에 있어서 未熟한 點을 到處에서 發見하게 된다. 그의 小說中에는 素材를 消化하고 料理해서 그것을 再構成하는 過程을 생략한 채 生硬한 그대로 내놓을 듯한 印象마저 준다. 그것은 그만큼 素材를 消化하고 料理할 能力이 不足했고 이것을 再構成하는 能力이 不足했음을 意味한다. 결국 曙海는 小說의 創作技術이 未熟했었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그의 小說 가운데 類似한 素材나 類似한 줄거리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의 問題作으로 꼽히는 作品들이 殺人, 放火, 發狂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고, 作中人物들이 極度の 憤怒에 사로잡혔을 때의 心理狀態도 비슷하다. 그의 몇 개의 小說에서는 脫家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理由나 動機도 비슷하다. 이것이 曙海小說을 펴 單純化하고 單調롭게 하는 理由이다. 「飢餓와 殺戮」의 경우 結末에 가서 殺人하는 極端的인 行動으로 發展시킨 것보다 改作前의 「吐血」에서처럼 主人公이 嘔吐하는 것으로 結末을 맺었더라면 작품으로서는 더 效果의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人間的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曙海小說은 하나의 一定한 公式에 代入해서 스토리를 꾸미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多樣性을 生命으로 하는 藝術作品으로서는 未洽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3〉 背景과 분위기

曙海小說 가운데 問題作에 속하는 「脫出記」, 「飢餓와 殺戮」, 「紅焰」 등의 背景이 間島라는 것은 상당히 注目을 必要로 한다.

新小說 가운데서도 그 背景을 美國等地로 擴大시킨 小說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李朝小說 가운데도 그 背景을 中國에 둔 소설등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소설의 背景에 登場하는 外國은 抽象的의요, 장식적인 要素 以上の 意味를 發見할 수가 없다. 「血의 淚」의 〈옥련〉과 〈구완서〉가 美國에서 工夫를 했든가, 「銀世界」의 〈옥순〉 男妹가 美國에서 工夫하는 것 등은 外國 文物의 수입이라는 時代的 要請에 따른 단순한 先進文明國일 뿐, 小說의 背景으로 設定한 것이 아니다. 李朝小說, 이를테면 西浦의 「謝氏南征記」, 「九雲夢」등의 小說의 무대가 中國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단순한 이야기의 무대나 장식적 要素에 지나지 않고 抽象的인 것이다. 실제로 李人植이나 西浦는 美國이나 中國에서 生活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에 비하면 曙海小說의 背景인 間島는 作品의 構造와 密着된 重要한 要素로 登場한다. 間島는 오늘날 外國으로 되어 있지만 20年代에는 많은 韓國人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韓國人의 삶의 據点이라는 点에서는 國土의 延長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많은 韓國人들이 間島로 건너 가 農事를 짓거나 獨立運動을 하기도 했다. 一時的인 居住地가 아니어서 間島에 건너 간 사람들이 스스로 學校를 세워 子女를 교육시키기도 했다.<sup>18)</sup> 이것은 間島가 곧 國土의 延長과도 같은 意味를 가진다.

대체로 韓國小說은 그 背景이 國內에 限定되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間島를 背景으로 間島에 흘러간 流浪民의 世界를 다룬 小說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素材의 擴大 以上の 意味를 지닌다. 이런 崔曙海의 間島에의 認識이 곧 民族意識의 發揚<sup>19)</sup>으로 昇華되었는지의 與否는 좀더 考究할 問題이기는 하지만 韓國小說史에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1930年代에 나온 金東仁의 「붉은山」등 間島를 背景으로 한 작품이 없지 않지만 20年代의 그것은 曙海의 그것을 빼놓고는 별로 없다. 특히 한 作家에 依해서, 그것도 直接 間島에서 生活해 본 體驗을 作品化한 것은 오직 崔曙海뿐이다. 間島에 건너 간 流浪民을 그럴 때 獨立運動이나 亡命과 결부시켜 하나의

18) 朴容玉：滿洲·中國의 僑胞(韓國現代史 8卷), 新丘文化社, 1971. p. 380 參照

19) 洪以燮：韓國現代精神史의 課題(文學과 知性, 2號)p. 289

圖式的인 世界를 그럴 可能性이 없지 않은 데 曙海의 그것은 植民地 <朝鮮>에서는 살아 갈 수가 없어서 間島로 흘러 간 가난하고 無識한 一般民衆의 生活의 軌跡을 追求했다는 데 意義가 있다. 그것은 韓國小說의 幅을 넓히는데 決定的 口實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間島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小說이 問題作으로 손꼽히는 것도 결코 우연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曙海는 韓國小說의 배경을 間島까지 擴大시켜 民族의 移動, 즉 流浪民의 生活을 그렸다는 데 小說史的 意義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曙海小說의 분위기는 대체로 暗鬱한 것이다. 作中人物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방의 描寫는 어둡침침하거나 곰팡내가 가득 찬 듯한 印象을 준다. 게다가 바깥 날씨도 <비>와 <눈보라>와 <바람>이 자주 등장한다. 대체로 날씨가 굵은 날 悲劇的인 事件이 일어나고 있다. 목의 살을 떼어 준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치러 간다든가, 기차에 깔려 죽는 날이라든가, 殺人·放火하는 날등은 날씨가 더 굵다. 이러한 暗鬱한 분위기는 그대로 작품의 主題를 暗示케 하고 있다. 이런 날씨는 인간의 心理나 行動에 이상한 충동을 일으키게도 하고 때로는 絶望感과 삭막한 心情을 불러 일으키게도 한다. 결국 이런 날씨의 提示는 主人公의 심리를 暗示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대체로 그의 小說의 분위기가 어둡고 陰沈한 것은 그의 小說의 主題와도 相通한다. 暗鬱한 主題에 暗鬱한 분위기, 그것이 曙海小說의 한 側面이고 貧窮에 허덕이는 인간의 內面世界와도 相通한다.

#### <4> 視点과 文体

曙海小說의 視点を ① 主人公의 自己 自身을 이야기하는 것(1人稱a型) ② 副人物이 登場하여 中心人物을 이야기 하는 것(1人稱b型), ③ 客觀的 觀察者의 立場에서 이야기 하는 것(3人稱a型), ④ 作家가 全知的 立場에서 이야기 하는 것(3人稱b型)으로 나누던 다음과 같다.

- ① 脫出記, 錢아辭, 葛藤, 白琴, 八個月, 東大門, 만두, 담요, 吐血等

- ②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누이동생을 따라, 무서운 印象, 落魄不遇, 주인 아씨等
- ③ 없음
- ④ 故園, 큰물진 뒤, 朴憲의 죽음, 棄兒, 暴君, 그믐밤, 拾參園, 藍流, 금봉어, 도라가는 날, 轉機, 人情, 飢餓와 殺戮, 紅焰等

위에서 보는 대로 그 主流는 3人稱 全知的 視点(3b型)에 있다. 그러나 主人公이 自己 自身の 이야기를 하는 1人稱(1a型)도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도 脫出記와 錢아辭는 書簡體 形式을 取하고 있다.

作中人物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作中人物과 讀者의 거리는 좁혀진다. 때로는 親近感을 주기도 한다. 特히 作中人物이 자기의 고민을 호소하고 絶叫할 때 讀者는 그 反應이 크다. 書簡體의 경우 더욱 그렇다. 脫出記와 錢아辭에서 讀者는 우선 書簡體 文章이 주는 獨特한 분위기와 호소력에 압도당한다. 「脫出記」의 <나>가 脫家하게 되는 理由나 動機, 그리고 「錢아辭」의 <변기운>이 脫家하게 되는 理由나 動機는 보기에 따라서 전혀 說得力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 文章이 주는 분위기와 호소력 때문에 說得당하고 있다. 그것은 『讀者를 論理的으로 說服시키고, 情緒的으로 압도하는』<sup>20)</sup> 效果가 있었기 때문이다.

3人稱 全知的 視点에 의한 小説에서도 우리가 받는 印象은 분노에 찬 絶叫과 호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어느것 하나도 담담한 것이 없다. 그것은 울음의 文体<sup>21)</sup>에서 온 까닭이기도 하지만 빈곤과 疾病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憤怒의 感情, 反抗의 感情을 激烈한 語調로 호소하고 絶叫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內容이 多少 가벼운 問題라고 하더라도 독자의 마음에 큰 衝擊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은 內容이 변변치 않은 것일지라도 응변하는 演士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훌륭하면 그에게 압도당하고 拍手를 보내는 聽衆들의 심리와도 비슷하다.

曙海小説은 그 傳達方法에 있어 호소와 絶叫를 적절하게 채용하여 깊은

20) 千二斗: 韓國現代小説論. 형설출판사. 1969. p. 88.

21) 金柱演: 崔曙海의 文体論. (文學思想. 1974. 11月號), p. 231.

印象을 준다. 이것은 그의 小說이 깊이 있는 問題를 다루지 않았음에도不拘하고 說得力을 획득하는 데 큰 役割을 했다.

## V 結 語

인간은 누구나 그가 살고 있는 當代社會와 現實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그가 살았던 當代的 社會制度, 價値觀, 慣習, 歷史的 狀況등에 대해서조차 完全히 自由로울 수가 없다. 作家라고 해서 例外가 아니다. 作家도 그가 살았던 當代社會의 制度나 價値觀, 慣習, 그리고 歷史的 狀況의 支配를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作家가 產出해 놓은 作品 역시 上記한 여러 制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作家의 想像力에 있어서도 作家가 現實과 社會에서 얻은 體驗의 再生이라는 點을 想起한다면 더욱 그렇다는 首肯을 하게 될 것이다.

崔曙海가 作品 活動했던 20年代의 植民地 <朝鮮>과 韓民族이 處해 있었던 狀況은 우리의 歷史上 特異한 것이었다. 自由의 박탈, 빈곤의 擴散과 深化, 꿈의 좌절, 휴머니즘의 위축 등 인간이 살아야 할 狀況 가운데 最惡의 것이었다.

20年代의 作家들은 이러한 當代社會에 대한 그 나름의 批評的 接近을 試圖했다. 崔曙海는 當代 社會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問題 가운데 特히 빈곤의 問題에 作家眼을 돌리고 그것을 追跡해 나아갔다. 當代 社會의 韓民族이 어떻게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대체로 세가지 樣相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위에서 檢討했다. 特히 植民地時代 日人들에 依한 土地의 수탈로 流浪民이 急增하고 이들 流浪民들의 間島에의 脫出과 生活를 克明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問題意識은 우리의 小說史 내지 精神史에 참으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曙海를 통해서 20年代 식민지 <朝鮮人>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보았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중한 體驗이 될 것이다.

그러나 崔曙海는 天性的인 藝術家는 아니었던 것 같다. 小說 創作에 있

어서도 그 技術的인 側面에서는 藝術的 形象化에 未洽했다. 價値있는 素材, 깊이 있는 問題意識, 그것만으로 좋은 作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素材와 問題意識을 어떻게 藝術적으로 再構成하여 形成化하느냐 하는 것이 작품의 成敗와 直結된다.

대체로 韓國小說을 鳥瞰하던 깊이 있는 問題意識을 追求한 경우 그 기술적 側面이 未洽하고, 技術적 側面이 優秀하면 그 小說에 담겨 있는 問題意識이 빈곤한 경우를 보게 된다. 崔曙海 小說에서도 이러한 韓國小說의 問題點은 浮刻되었다.

崔曙海의 小說에 浮刻된 빈곤과 반항이 단순히 『個人的인 次元』의 것<sup>22)</sup>으로 보거나 『本能的 自然發生的』인 것<sup>23)</sup>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그러나 曙海小說에 浮刻된 빈곤은 曙海의 體驗의 길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 없지만 曙海 개인만의 貧困이 아니라 당시 大多數 一般民衆의 것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게 注目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貧窮의 樣相이 단순히 曙海 個人만의 것일 때,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問題는 20年代 식민지<朝鮮>이 안고 있었던 가장 重要한 問題에 曙海가 作家眼을 돌리고 그것을 追跡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大多數 一般民衆과 連帶意識을 갖고 이에 接近했다는 데 意義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曙海의 作家精神이 『民族意識의 강렬한 추구』<sup>24)</sup>나 『일제에의 抗爭意識을 明示』<sup>25)</sup>하는데까지 昇華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反日的인 민족주의 요소는 曙海의 작품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sup>26)</sup>고 하는 相反된 見解는 앞으로 더 考究되어야 할 課題다.

22) 李哲範: 韓國新文學大系(中), 耕學社, 1972. p. 241

23)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宜明文化社, 1968. p. 212

24) 洪以燮: 韓國現代精神史의 課題(文學과 知性 2號) p. 289

25) 洪以燮: 1920년대 植民地的 現實(文學과 知性 7號) p. 111

26) 白 鐵: 崔曙海의 文學史의 位置(文學思想 1974. 11月.) p. 241



## 參 考 文 獻 及 論 文

- 1)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崔曙海篇)文元閣, A-6, 1974. 4.
  - 2) 開關 影印本
  - 3) 朝鮮文壇, 影印本
  - 4) 金炳翼: 韓國文壇史, 一志社, 1973. 10.
  - 5)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 國民書館, 1973. 10.
  - 6) 金字鐘: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68. 9.
  - 7)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晉社, 1973. 8.
  - 8) 金允植: 韓國文學의 論理, 一志社, 1974. 5.
  - 9) 白 鐵: 新文學思潮史(5版), 民衆書館, 1963. 4.
  - 10) 李哲範: 韓國新文學大系(中), 耕學社, 1972. 2.
  - 11)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1961. 10.
  - 12)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69. 7.
  - 13) 韓國現代史 8卷, 新丘文化社, 1971. 9.
  - 14) 金基鎮: 文壇最近의 一傾向, (開關 1925. 1.)
  - 15) 金基鉉: 崔曙海의 逸話, (石塔위의 흰구름), 高麗大出版部, 1973. 5.
  - 16) 〃 : 崔曙海의 初期作品, (文學과 知性 14號)
  - 17) 金柱演: 울음이 文体와 直接話法, (文學思想, 1974. 11.)
  - 18) 朴英熙: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의 地位, (開關 1925. 12.)
  - 19) 白 鐵: 한발 앞선 孤獨의 意味(文學思想, 1974. 11.)
  - 20) 李明子: 새 調査에 依한 崔曙海의 作品目録(文學思想, 1974. 11)
  - 21) 李海聲: 새 資料를 통해 본 崔曙海의 生涯, (文學思想, 1974. 11.)
  - 22) 蔡 燾: 貧窮文學에서의 脫出記(文學思想, 1974. 11.)
  - 23) 洪以燮: 韓國現代精神史의 課題(文學과 知性, 2號)
  - 24) 〃 : 1920年代 植民地의 現實(文學과 知性 7號)
- 其他.